

사회

‘대출비리’ 서창농협 선물잔치 물의

설 명절 조합원 2000여명에 25만원어치씩 평소보다 5배 늘려 의혹... 조합측 “통상적”

광주 서창농협이 고객 동의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설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씩 모두 수억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서창농협이 고객 동의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설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씩 모두 수억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장 선거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장 명의로 수만~수십만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을 매년 조합원들에게 돌려면서 현 조합장의 지지세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년 후에 조합장이 농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세금은 모두 서창농협에 수반한 조합원들에게 돌려면서 현 조합장의 지지세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비리 비아농협 본·지점 압수수색

광주지검

검찰이 고객 동의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광주지역 단위농협인 비아농협 본점과 지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단위 농협 대출비리를 확인하는 한편, 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영장

영양경찰은 5일 동료 근로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10분께 영암군 삼호면 대불산단 내 모 업체 사무실에서 한국인 근로자 이모(23)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도 男선생님 만나기 어렵다. 광주 초등 임용 합격자 250명중 여성이 73%. 광주지역 초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남자 담임 교사를 만나기가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장 체포. 지난 3일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원들이 술에 취해 대낮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꺼내 자해소동을 벌여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 불 지르고 흉기 난동

남부경찰, 40대 검거. 주택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 고물상에 팔아 생활해온 최모(47)씨가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에 나타난 것은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경.

신의 손수레에 실려있던 폐지 등에 불을 질렀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주변 전선까지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동거녀와 싸우고 술에 마신 뒤 환기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학교폭력 경찰서장에 직보. 이주호장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 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본금 대신 내주고 ‘살인 고리’ 갈취

광주지검, 법인설립 브로커 등 무더기 기소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려는 법인설립자에게 연 146%의 살인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건설업체 임원과 알선 브로커,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신 의 손수레에 실려있던 폐지 등에 불을 질렀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주변 전선까지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긴급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동거녀와 싸우고 술에 마신 뒤 환기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소액 전담법관제 검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소액 사건 등 특정분야만 맡는 전담법관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 임용하되 임기에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특정분야 재판관 담당하게 하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노래방서 입주 협약 공짜술 마신 조폭

노래방서에서 조폭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해 공짜술을 마셔온 점포(23)씨 등 20대 4명이 경찰서행. 5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시키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5곳에서 모두 450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먹고 ‘술값을 받으면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and 비고.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items for auction, including apartments, land,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legal details.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